



2014년 5월 23일 제 30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동향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경제] 미 연준, 4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2008년 이후 시행되어온 경기부양 및 초저금리 정책 마무리 방안 논의 개시/ 향후 가계,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와 금융시장 개선 등으로 성장세 확대 예상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에너지] 미 에너지시장 전망(2012-2040): 미국내 자체 에너지 생산의 증대(연평균 0.9% 증가), 완만한 소비 증가세(연평균 0.4%) 등으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 하락(해외수입 연평균 0.4% 하락, 수출은 2% 상승)이 예상되며,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의 시장내 비중이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은 연평균 각각 1.4%(WTI) 및 3.7% 상승 예상)

[ICT] 워싱턴 DC 창업경진대회(Challenge Festival) 개최: 에너지, 교육, 보건의료,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예선을 거친 총64개 벤처 기업들이 전세계에서 참여, 경쟁/ 동시에 창업문화 활성화, 대기업과 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패널토론도 진행

-HandUp사(노숙자 등을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이들에게 직접 기부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가 최종 우승.

주요 최근 미국 경제동향

1 미국 연준(Fed)의 4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논의 내용

- 미국 연준(Fed)는 4월 29~30일 개최된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채택해온 경기부양 및 초저금리 정책을 마무리하고 이를 대체할 수단에 대한 논의를 처음 시작
 -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논의개시가 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들(역레포(Reverse REPO), 기간 예금제도 등)과 기준금리 인상 후 단기금리 관리 방안 등을 검토
- 연준위원들은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 주택부문의 침체와 신흥국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지만, 향후 가계와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와 금융시장 개선 등으로 성장세 확대를 예상
- 다음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6월 17~18일에 개최되며,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채권매입 규모를 100억달러 또는 150억달러를 추가 감축할 것으로 예상

2 주요 경제동향

- 4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대비 6.4%가 증가하였으며, 4월 기존주택 판매는 1.3%가 증가하여 금년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

구 분	12월	2014.1월	2월	3월	4월
신규주택 판매(상무부 발표)	-0.7%	3.4%	-4.4%	-6.9%	6.4%
기존주택 판매(중개협회 발표)	0.8%	-5.1%	-0.4%	-0.2%	1.3%

* 증가율은 전월대비

- 2014년 5월 세계 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에 비해 2.8만명이 증가한 32.6만명을 기록

구 분	1년전	4.26	5.3	5.10	5.17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34.4만	34.5만	32.1만	29.8만	32.6만

※ 내용 관련 문의 : 유재훈 재경관보 (202-939-5649, dustinryu@gmail.com)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4.5.23 금)

DOW(0.06% 상승) KOSPI(0.08% 상승) 달러 환율(0.04% 상승)

재경관실

미국 주가는 연준의 초저금리 유지방침,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소폭 상승
 미국 국채금리는 전주에 큰 폭 하락하였으나 이번주는 소폭 반등하였고, 유가는 리비아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2주째 소폭 상승
 원화환율은 소폭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전주와 별다른 변동은 없음

[주가]

	'12말	'13말	'14.2말	3말	4말	05.21	05.22	05.23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3,104.14	16,576.66	16,321.71	16,323.06	16,535.37	16,374.31	16,533.06	16,543.08	0.06%	0.05%	-0.20%
Nasdaq	3,019.51	4,176.59	4,308.12	4,155.76	4,103.54	4,096.89	4,131.54	4,154.34	0.55%	1.24%	-0.53%
S&P 500	1,426.19	1,848.36	1,859.45	1,857.62	1,878.33	1,872.83	1,888.03	1,892.49	0.24%	0.75%	2.39%
KOSPI (한)	1,997.05	2,011.34	1,979.99	1,985.61	1,961.79	2,008.33	2,015.59	2,017.17	0.08%	2.82%	0.29%
NIKKEI (일)	10,688.11	16,291.31	14,652.23	14,827.83	14,304.11	14,042.17	14,337.79	14,462.17	0.87%	-1.10%	-11.23%
FTSE100 (영)	5,897.80	6,749.09	6,809.70	6,615.58	6,769.91	6,802.00	6,821.04	6,820.56	-0.01%	0.75%	1.06%
DAX (독)	7,612.39	9,552.16	9,692.08	9,587.19	9,584.12	9,639.08	9,697.87	9,720.91	0.24%	1.43%	1.77%

[금리]

(단위: %)

	'12말	'13말	'14.2말	3말	4말	05.21	05.22	05.23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	--------	----	----	-------	-------	-------	-----	-----	-----

T/NOTE (3월)	0.05	0.07	0.04	0.04	0.02	0.03	0.04	0.03	-0.01	0.01	-0.04
T/NOTE (10년)	1.78	2.99	2.65	2.73	2.71	2.52	2.54	2.56	0.02	-0.15	-0.43
T/NOTE (30년)	2.95	3.90	3.60	3.55	3.49	3.38	3.42	3.43	0.01	-0.06	-0.47
LIBOR (Dollar, 3월)	0.31	0.25	0.24	0.23	0.23	0.23	0.23	0.23	0.00	0.00	-0.02

[환율]

	'12말	'13말	'14.2말	3말	4말	05.21	05.22	05.23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70.60	1,055.40	1,067.50	1,064.70	1,033.20	1,026.90	1,024.20	1,024.60	0.04%	-0.83%	-2.92%
Y / US\$	86.46	105.30	101.72	102.87	102.38	101.22	101.66	101.66	0.00%	-0.70%	-3.46%
US\$ / EUR	1.3240	1.3736	1.3698	1.3751	1.3800	1.3706	1.3662	1.3650	-0.09%	-1.09%	-0.63%
CNY / US\$	6.2304	6.0628	6.1620	6.2237	6.2659	6.2379	6.2343	6.2390	0.08%	-0.43%	2.91%

[유가]

	'12말	'13말	'14.2말	3말	4말	05.21	05.22	05.23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1.82	107.88	102.40	101.67	101.28	102.44	104.07	103.74	-0.32%	2.43%	-3.84%
Dubai (\$/배럴)	107.81	108.77	105.55	104.58	104.78	106.12	106.59	106.94	0.33%	2.06%	-1.68%

* 최종증가 기준 작성

미국 에너지시장 전망(2012-2040)

※ 미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 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2014년 연간 에너지전망(Annual Energy Outlook 2014)" 보고서(5월 최종발간)를 통해 2040년까지의 미국 에너지시장 전망을 발표하였는 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음.

1 에너지 수급(2012~2040)

- 에너지 생산 증대 및 비교적 완만한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은 줄고,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생산은 연평균 0.9% 증가,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4% 증가, 에너지 수입은 연평균 0.4% 감소, 에너지 수출은 연평균 2.0% 증가 전망
 - 천연가스 수출은 동기간 중 연평균 5.9%의 가파른 증가세 시현
 - 일일 원유생산량은 2012년 6.49백만 B/d에서 2040년 7.48백만 B/d로 연평균 0.5%증가
- 국내에너지 소비 정체, 석유수입 감소 및 천연가스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해외의존도(순수입/총에너지소비)는 감소하며, 원유/액체유의 수입의존도도 감소
 - 일일 석유소비량은 2012년 18.49백만 B/d에서 2040년 18.73백만 B/d로 기간중 정체
 - 에너지 해외의존도(에너지 순수입/에너지 소비,%) 및 석유 해외의존도(원유 순수입/원유 소비,%)
 - * 에너지 : (2012) 16.1 (2020) 6.1 (2030) 3.7 (2040) 3.9
 - * 석 유 : (2012) 41 (2020) 25 (2030) 28 (2040) 32

2 에너지원별 구성(에너지 믹스)

- (생산) 천연가스 생산 비중이 급증하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석유, 석탄, 원자력의 비중은 감소

(단위 : 천조 Btu)

원별 에너지 생산 구성		2012		2020		2030		2040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석유 등 액체유	소계	17.08	21.6	23.90	25.2	21.69	21.8	19.99	19.6
	원유/컨덴세이트	13.87	17.5	20.36	21.5	17.71	17.8	16.00	15.7
	천연가스액	3.21	4.1	3.54	3.7	3.98	4.0	3.99	3.9
천연가스		24.59	31.1	29.73	31.3	35.19	35.4	38.37	37.6
석탄		20.60	26.0	22.36	23.6	22.61	22.8	22.61	22.1
원자력		8.05	10.2	8.15	8.6	8.18	8.2	8.49	8.3
재생에너지	소계	8.42	10.6	10.48	11.0	11.39	11.5	12.40	12.1
	수력	2.67	3.4	2.81	3.0	2.87	2.9	2.90	2.8
	바이오매스	3.78	4.8	4.66	4.9	5.29	5.3	5.61	5.5
	기타재생에너지	1.97	2.5	3.01	3.2	3.23	3.3	3.89	3.8
기타		0.41	0.5	0.24	0.3	0.24	0.2	0.24	0.2
합계		79.15		94.86		99.30		102.10	

- (소비) 석유는 최대 비중을 유자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속적인 비중 하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중 급증

* 천연가스는 발전 분야에서 2035년 최대 연료원아 될 것으로 전망

(단위 : 천조 Btu)

원별 에너지 소비 구성		2012		2020		2030		2040	
		소비량	비중	소비량	비중	소비량	비중	소비량	비중
석유 등		35.87	37.7	36.86	36.6	35.65	34.5	35.35	33.3
천연가스		26.20	27.6	27.65	27.4	30.03	29.1	32.32	30.4
석탄		17.34	18.2	18.56	18.4	19.01	18.4	18.75	17.6
원자력		8.05	8.5	8.15	8.1	8.18	7.9	8.49	8.0
재생에너지	소계	7.17	7.5	9.17	9.1	10.05	9.7	11.05	10.4
	수력	2.67	2.8	2.81	2.8	2.87	2.8	2.90	2.7
	바이오매스	2.53	2.7	3.35	3.3	3.95	3.8	4.26	4.0
	기타재생에너지	1.97	2.1	3.01	3.0	3.23	3.1	3.89	3.7
기타		0.39	0.4	0.34	0.3	0.35	0.3	0.35	0.3
합계		95.02		100.73		103.27		106.31	

3 에너지 가격

- 유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브렌트유: 연간 0.8%, WTI: 연간 1.4%)가 전망되며, 천연가스 헨리허브 가격은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산업용 수요 등
 - * 국내수요 증가로 인해 높은 가격상승 기조 예상(연평균 3.7% 상승)

4 주요 이슈별 하이라이트

- 치밀오일(Tight Oil) 생산 증가가 전체 원유 및 액체유 생산 증가를 주도
 - 치밀오일 생산 비중은 2008년 전체 원유생산의 12%에서 2012년 현재 35%로 증가한 상황
 - 이러한 증가세는 향후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에는 일일 원유생산량 (9.6 백만 B/d)의 절반이 치밀오일이 될 것으로 예상
- 천연가스 생산량의 증대는 미국 산업생산 증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
 - 천연가스는 난방연료, 발전용 연료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등의 원료로도 사용되며, 석유화학 원료 생산은 2012-2035년 중 연평균 3.4%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미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2012년 8.7 천조Btu에서 2025년 10.6천조Btu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대부분의 수요 증가는 산업용 수요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제지, 식료, 유화원료, 금속재료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 사용
- 수송용 연료 사용량은, 연비효율 강화, 운전습관 개선 등으로 총소비량에서 감소세를 지속
 - 차량 평균연비(상용차 제외)는 2012년 21.5 MPG에서 2040년 37.2 MPG로 연평균 2%씩 개선
 - 이에 따라 수송용 연료 사용량도 2012년 8.4백만 B/d에서 2040년에는 6.4백만 B/d로 하락할 전망
- 발전용 원료로 천연가스의 사용이 대폭 확대되며, 재생에너지 사용도 현저히 증가
 - 2035년부터 천연가스는 석탄을 제치고 제1의 발전용 연료의 입지를 구축. 다만, 이러한 수요증가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
 - 재생에너지에서는 풍력 및 태양광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설치비 저감 등이 달성되면서 2040년에는 전체 발전원 비중에서 16%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재생에너지 발전은 2012-2040년간 연평균 3.2% 증가)

○ 탄소배출량 저감

- 에너지 소비에 기반한 미국의 탄소 배출량은 2040년까지 매년 2005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최대 탄소배출 부문이었던 수송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화가 달성됨으로써 2024년에는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산업 부문 탄소배출량이 수송 부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
- 발전 부문 또한 효율화 및 천연가스 사용 확대 등으로 2012-2040년간 발전량이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은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내용 관련 문의: 최성준 상무관보 (202-939-5670, s505agnie@gmail.com)

2014 Challenge Festival

-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한 창업기업 활성화 행사 -

1 행사 개요

□ 일반 현황

- 행사명: 2014 Challenge Festival
- 개최일시 및 장소: 2014.5.10(토)-17(토), 워싱턴 DC
- 주관기관: 1776
 - 1776은 Evan Burfield와 Donna Harris 두 사업가들에 의해 2013.1월 설립된 비영리기관(워싱턴 DC 소재, 직원 수 12명)으로, 창업기업들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 (※ 기관명 '1776'은 미국 독립혁명에서 비롯됨.)
- 참가자: 정부·업계(대기업 및 창업기업)·언론 관계자, 경합에 참석하는 64개 창업기업 등
 - 주요참석자: Vincent Gray 워싱턴 DC 시장, Jessica Rosenworcel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상임위원, Doug Rand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부장, Noah Phillips John Cornyn 상원의원 보좌관(chief counsel), Jennifer Bradley 브루킹스 fellow 등

□ 행사 구성

- "2014 Challenge Festival"은 창업문화를 촉진하고 미국 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기업(Start-up)들을 대기업, 투자자 및 여타 창업기업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행사로, 크게 경합('챌린지 컵')과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로 구성됨.

o (경합) 전 세계적으로 16개의 도시에서 예선을 통과한 64개의 창업기업들이 참여하여 동 행사기간 중 경합을 벌여 우승자를 가리게 되며, 우승자는 15만 불의 상금을 투자지원의 형식으로 주어짐.

- 에너지·교육·보건의료·스마트시티 부문에서 각각 16개 업체*가 준결승에 참가하였고, 각 부문에서 2개 업체씩 선발되어 결승전에 참가함.

* WaterLens LLC (에너지), PlugSurfing (에너지), Educanon (교육), LinguaLY (교육), Cancer IQ (보건의료), MediSafe (보건의료), HandUp (스마트시티), MellowCab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 부문으로 참가한 **HandUp**(샌프란시스코 소재, 노숙자 및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온라인에 등록하여 직접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최종 우승자로 선정됨.

o (컨퍼런스) 창업기업-대기업 협력사례, 대기업 내 창업문화 도입 필요성, 투자확보 및 방식의 변화, 창업기업-정부 협력 방안 등 창업기업들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을 협업자(대기업, 창업기업, 정부, 투자자)의 관점에서 패널토론의 형식으로 진행함. (*개최 일자 및 1776외 공동주관기관)

- 특히, 동 행사가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innovation)과 규제(regulation)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전반적인 중점을 두었으며, 에너지·교육·보건의료·스마트시티 등 규제가 많은 부문 (regulated industries)에 대한 토론이 주로 이루어짐.

- 한국에서는 실패를 낙오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실패를 성공의 기반으로 이야기하며 현명한 실패를 권장하는 추세로 이러한 창업에코시스템이 창업문화 활성화를 가능케 함.

2

평가 및 시사점

-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한 창업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과 정부 규제가 양립하는 4개 분야 (에너지, 교육, 보건의료, 스마트시티)에 집중한 행사로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분야의 창업지원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라고 평가됨.
- 내년 이 행사가 개최될 경우 한국의 창업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홍보·소개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출전 팀이 없더라도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교류차원에서 참가 유도 바람직.
- 워싱턴 DC 지역뿐만 아니라 전미지역에서 이러한 종류의 창업경진대회가 있을 경우 총영사관 및 관련 국내기업에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지원 (예: TechCrunch Battlefield (라스베가스, 뉴욕 등에서 개최된 바 있음.))

※ 내용 관련 문의 : 정성환 방통관 (202-939-6478, xyz3812@gmail.com)